

#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 김해시를 중심으로 -

나 금 실\*\* · 김 희 재\*\*\* · 최 송 식\*\*\*\*

###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족 복지적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회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국적이요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에 비해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가족탄력성 요인 중에서는 가족역할안정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적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 강화를 위한 가족복지

\* 이 연구는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부)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411-J01101)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ngs3829@pusan.ac.kr)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khjhh@pusan.ac.kr)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choiss@pusan.ac.kr)

정책 마련을 시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가족탄력성,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족복지정책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체류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가족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결합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각각 산업연수 또는 고용허가제를 신청하여 시간차를 두어 입국하기도 하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산업연수생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 배우자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재결합하는 경우, 한국에 와서 외국인노동자끼리 또는 한국인과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자녀를 낳은 후 자녀만 모국으로 보내고 부부만 남는 경우, 자녀를 포함한 가족전체가 재결합하는 경우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규모와 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가족생활은 가족동반금지라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등록외국인노동자 가족들의 경우 언제 단속의 대상이 되어 가족이 헤어질지도 모르고, 해고나 임금체불과 불안정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자녀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 자녀들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입학허가가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이를 받아들인 학교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 단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노동자 가족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외국인노동자 가족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적응 또는 생활수준, 자녀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그 수는 적다. 그 이유는 먼저 원칙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순환제 노동으로 가족동반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외국인노동자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적으며, 가족으로서 범주화되지 않고 또 가족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의 결여'(키노시타 미에, 2006: 3)와 이들 가족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3). 셋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권까지 논의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유엔은 한국이 산업노동인력 부족국가로, 한 해 10만 이상의 외국노동인력을 받아들일 것을 예측했다(김재환, 2005). 이러한 한국적 상황은 향후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가족들의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거주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모국을 떠나 문화적으로 다른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주노동으로 인한 가족이 분리되는 위기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생활 또는 모국과의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가족생활이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적응 간의 분석도구로 가족탄력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김미옥, 2001; 윤향미, 2008; 이수연, 2008). 가족탄력성 개념은 가족과정(Family Process) 차원에서 가족을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Walsh, 1998, 양옥경 외 역, 2002), 역동적 실제인 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가족을 다차원에서 조명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김미옥, 2001:17). 이러한 가족탄력성의 개념을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연구에 적용하여 가족탄력성이 한국사회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탄력성 개념을 사용하여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한국의 문화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여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가족탄력성 강화를 위한 가족복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개념과 규모 추정

#### (1) 외국인노동자 가족 개념

‘외국인노동자 가족’이라 함은 외국인노동자와 혼인한 자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피부양 자녀 및 해당 법률 또는 관계국간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가족으로 인정되는 여타의 피부양자를 말한다(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50). 키노시타 미에(2006)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 가정,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들어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간의 혼인으로 형성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외국인이주자로 이주한 가정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박범식(2008)은 세 가지 유형 외에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지만, 그 중 남편 혹은 아내 홀로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분리형 가족을 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범주를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노동자끼리, 가족이 모국에 있는 분거 가족으로 삼고자 한다.

#### (2) 외국인노동자 가족 규모 추정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규모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민배우자의 지역별 현황과 체류외국인 중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수를 이용해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5,087명으로 남자 15,876명, 여자 109,211명이다(출입국관리본부, 2009).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32,578명), 서울(29,455명) 다음으로 경남이 국민배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723명).

국가별로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아시아계 외국인 남자의 국적은 조선족이 가장 많고(6,807명), 중국인(3,311명), 파키스탄인(617명), 필리핀인(164명), 베트남인(159명),

네팔인(12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계 외국인 여성은 중국인(30,115명)이 가장 많고, 베트남인(30,014명), 조선족(25,759명), 필리핀인(6,157명), 캄보디아(3,22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12월말 기준). 여성의 경우 이주의 목적이 결혼이주와 혼재되어 있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적 이유에서 결혼이주를 하는 것이며, 노동을 하는 목적도 모국의 친정식구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주노동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모국인과의 결혼의 경우는 그 수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경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모두 그러하다. 가족단위 이주의 경우에는 입국 당시 가족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끼리 혼인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에 혼인신고 등을 하지 않으므로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 50).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24,302명으로, 선진국 아동·청소년을 제외한 아시아계 아동·청소년의 수는 10,742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년 통계연보). ‘외국인노동자의 자녀가 대부분 미등록자로, 시민단체에서는 약 11,000명 정도 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는 1,391명에 불과하고, 약 8,600여 명의 아이들이 정규 교육권 밖에 방치되었다’(동아일보, 2010년 1월 14일자)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2~3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 상태로 국내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성천, 2009). 이러한 자료들에 기반을 두어 국내 외국인노동자 가족 규모를 추정해 보면, 국민 배우자 남자를 기준으로 15,876명, 미등록자 1~2만 명 정도로 대략 25,000여 명에서 3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 (3) 김해시 외국인노동자 현황

경남 김해시는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행안부, 2008). 주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75,093명으로 거주외국인의 수는 10,129명(남 8,041명, 여 2,088명)으로 김해시 인구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김해시청, 2008). 이

는 전국 총인구대비 1.8%보다 높으며, 서울(2.5%), 경기(2.5%) 다음으로 거주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해시의 국민배우자는 991명으로 남자 97명, 여자 894명으로 나타났다(출입국관리본부, 2009). 김해시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6년과 2007년에 급증하였다(김해시청, 2007). 이는 고용허가제 이후 김해시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교적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김해지역이 외국인노동자를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해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조선족 포함 2,791명), 베트남인(2,236명), 필리핀인(1,055명), 인도네시아인(905명), 우즈베키스탄인(438명), 파키스탄인(287명), 방글라데시인(105명), 기타(2,312명) 순으로 총 10,129명으로 나타났다.

## 2) 가족탄력성 개념

가족학자들은 왜 어떤 가족들은 전환과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하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가족들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쉽게 좌절하고 파괴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가족스트레스 이론과 가족탄력 이론은 이러한 과학적 질문에 근거하여 진보해 왔다. 가족탄력성이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가족이 보다 적응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의 특성, 자원, 속성을 의미하는 가족자질이다(이은희, 2008:196).

가족탄력성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는 개인탄력성(Individual Resilience)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개인탄력성은 고위험 상황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원조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과 위험요인(risk factor)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김미옥, 2002:11). 탄력성이란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다(Walsh, 1998, 양옥경 외 역, 2002: 33).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은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 후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탄력성이 가족에게 적용되면서 가족이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Walsh와 McCubin과 같은 연구자는 이러한 환경적 체계들을 가진 가족에게 탄력성의 개념을 적용시켰다(김안자, 2005:8). 또한 가족탄력성은 기능적 단위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스트레스 이론과 관련하여 가족탄력성 모델을 강조하였다(Walsh, 1998, 양옥경 외 역, 2002:48).

가족탄력성에서 가족의 신념체계는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탄력성의 강력한 힘이다. 가족 신념체계는 응집력을 제공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위기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을 조직한다(David Reiss, 1981, Walsh, 1998, 양옥경 외 역, 2002:93 재인용). 그리고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를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여 도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과 시간의 경과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다(Carter & McGoldrick; 김미옥, 2001, 재인용) 조직 유형개념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융통성은 가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긴장이 야기되는 상황이나 사건에 접했을 때 가족구성원 간에 새로운 역할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개념이다. 연결성은 가족 내의 상호지지, 연합, 분리와 상호협력, 자율성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연결성은 응집력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서로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을 의미한다(Olson, 1993, 김승돈·김용환, 2009에서 재인용). 사회·경제적 자원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으며, 탄력적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의사소통과정은 명확성, 개방적인 정서공유,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을 요인으로 삼고 있다. 가족들이 집안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른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애정표현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의사소통과정은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해결과 정서공유, 친밀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3) 선행연구 검토

가족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장애아동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위기에 처한 가족들에 관해 주로 연구되었다(김미옥, 2001; 윤향미, 2007; 현은민, 2008). 이주민의 가족탄력성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 간의 연구로, 주로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양옥경·김연수·이방현, 2007; 광민정, 2008; 이미승·정갑숙, 2008; 권복순, 2009; 양옥경·송민경·임세와, 2009). 홍미기(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부의사소통이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수연(2008)은 가족탄력성이 결혼이민여성가족의 적응에 유의미한 관계를 분석하면서, 가족스트레스보다 가족탄력성이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가족은 익숙한 모국의 문화를 떠나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적응하려 노력한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결과 나타난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말한다(정진경·양계민, 2004:105). 문화적 적응과정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저조한 정신건강 상태, 소외감, 신체증세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등의 특정한 일련의 스트레스적 행동들을 동반한다. 이렇게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역기능을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고 한다(나임순, 2006:163-164). 김선화(2004)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경험하는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승중(1995)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로 변안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주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젯거리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일정 기간의 전체 스트레스 총량(R.S. Lazarus & S. Folkman, 1984, 김정희 역, 1991)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건강 간의 연구(김혜미·김선화, 2008)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신체증후군에 유의미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 많은 문제를 겪을수록 외국인노동자도 더 높은 수준의 불안증후군과 정신신체증후군을 겪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정기선, 1999: 61~78).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연구(이순희·이영주·김숙영·김신정, 2009)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사회적 지지와 모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가족에 주목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외국의 연구 중에는 비자발적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적응 과정에서 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들이 다소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들은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문화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Sluzki(1979)는 이주가 가족 내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Samarasinghe, Fridlund와 Arvidsson (2006)의 연구에서는 난민가족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수용태도와 통합정도와 더불어 가족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역할이 가족의 성공적 적응과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진미정·이순형, 2007: 66에서 재인용). 진미정과 이순형(2007)은 새터민 연구에서 성별과 세대별 가족구조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규정 및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주목하여 새터민의 문화적응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미옥(2001)은 가족 탄력성 요인 중 가족통제감, 가족강점, 응집력, 가족자원,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안자(2005)연구에서도 가족탄력성은 한부모 가족의 가족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외국인노동자 가족들이 대다수의 가족 탄력성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애가 있는 가족상황은 아닐지라도 이질적인 타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에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가족들의 가족탄력성은 한국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 1) 측정변인과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가족탄력성이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문화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측정변인은 가족탄력성, 문화적응스트레스, 그 외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가족탄력성의 하위 단위 변인들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각 척도

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와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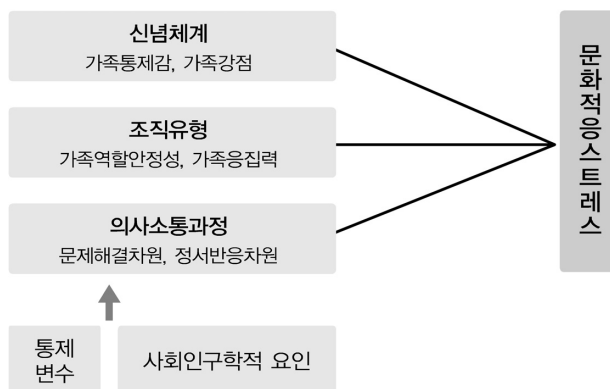
변수		척도	Cronbach's $\alpha$		
가족탄력성	신념체계	가족통제감(18문항)	.792	.873	.920
		가족강점(12문항)	.789		
	조직유형	가족역할안정성(5문항)	.658	.689	
		가족응집력(10문항)	.765		
	의사소통과정	문제해결차원(7문항)	.821	.804	
		정서반응차원(4문항)	.728		
문화적응스트레스(20문항)*			.935		

출처: 김미옥(2001), p.49에서 척도를 인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1) 연구모형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을 독립변인으로 삼았으며, 종속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이다. 이와 같은 측정변인들을 이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연구모형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의 신념체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즉,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 측정변인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조직유형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즉, 가족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측정변인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즉, 문제해결차원, 정서반응차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가짐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력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2) 독립변인

본 연구는 Walsh의 가족탄력성 개념을 사용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을 구성하였다. 가족탄력성은 신념체계(가족통제감, 가족강점), 조직유형(가족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의사소통과정(문제해결차원, 정서반응차원)으로 측정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각 질문항은 김미옥(2001)과 윤향미(2007)가 번안하여 사용한 가족탄력성 연구를 참고하였다. 전체 질문항은 총 56문항으로 신념체계 30문항, 조직유형 15문항, 의사소통과정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 신뢰도 Cronbach의 알파계수는 .920로 내적 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신념체계는 가족의 위기 상황 해석 및 의미를 부여하는 척도이며,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둔 긍정적 시각이다. 신념체계의 질문항은 총 30문항이며, 하위척도로 가족통제감, 가족강점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16문항은 역코딩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신념체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문항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각각 .792, .789로 나타났다.

조직유형은 가족의 안정성, 역할, 규칙, 상호 작용패턴, 가족의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조직유형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단위로 가족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5

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10문항은 역코딩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조직유형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각각 .658, .765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정은 의사소통의 명료화, 개방적인 감정표현,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하위 단위로 문제해결차원, 정서반응차원으로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긍정적인 7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821, .728로 나타났다.

### (3) 종속변인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소수자 집단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주류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적응한다(Parrillo, 2008: 32). 문화적응은 개인이 주류 문화로부터의 정신 건강, 사회적 통합의 감정과 더불어 행동, 가치,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Fugita & O'Brien, 1985, 나임순, 2006 재인용). 그러나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정체성 혼란, 소외감, 차별감 등 일련의 문화적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척도로 Sandhu와 Asrabadi(1994) 연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승중(1995)의 질문지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승중은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움,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 등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총20문항으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1점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20문항을 역코딩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935으로 내적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 2) 자료의 수집과 분석결과

이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김해지역의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4개 국의 외국인노동자들로 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국적은 중국인(조선족 포함), 베트남인, 필리핀인, 그리고 인도네시아인들이다. 이들 4개 국의 외국인노동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언어적·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4개 국의 언어로 각각 번역하여 2009년 8월24일부터 9월 22일까지(30일간) 배포, 수거하였다. 조선족의 경우 중국인과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역한 조사지를 사용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미등록인 경우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모집단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표집의 접근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추출은 눈덩이표집을 사용하였다. 김해시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연쇄적으로 소개받는 방법을 통해 무작위로 조사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관리자에게도 조사대상자를 소개받아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전체 180부를 배포하여 169부(93.9%)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43부(25.4%), 조선족 20부(11.8%), 베트남인 38부(22.5%), 필리핀인 38부(22.5%), 인도네시아인 30부(17.8%)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유효하지 않은 9부를 제외한 160부(94.6%)를 분석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분류, 코딩, 재코딩,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Version 14.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김해지역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전체	중국인	조선족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니인
성별	남자	63.2	64.1	57.1	40.0	74.3	79.3
	여자	36.8	35.9	42.9	60.0	25.7	20.7
연령별	20대	27.3	0.0	7.7	63.6	24.2	33.3
	30대	51.0	56.8	53.8	30.3	60.6	55.6
	40대 이상	21.7	43.2	38.5	6.1	15.2	11.1
거주 기간	1년 미만	3.7	8.6	14.3	0.0	0.0	0.0
	1-2년 미만	20.9	14.3	42.9	22.2	12.5	26.9
	2-3년 미만	42.5	40.0	35.7	44.4	43.8	46.2
	4-5년 미만	15.7	11.4	7.1	14.8	18.8	23.1
	5년 이상	17.2	25.7	0.0	18.5	25.0	3.8
학력별	중졸 이하	21.2	32.4	56.3	22.2	2.6	10.3
	고졸	50.6	43.2	43.8	69.4	23.7	75.9
	대졸	21.8	18.9	0.0	5.6	60.5	6.9
	대학원이상	3.8	2.7	0.0	0.0	13.2	0.0
	기타	2.6	3.7	0.0	2.8	0.0	6.9
배우자 국적	모국	64.3	64.9	93.3	38.9	54.1	93.1
	한국	24.7	29.7	6.7	36.1	32.4	3.4
	타국	1.9	2.7	0.0	2.8	2.7	0.0
	기타	9.1	2.7	0.0	22.2	10.8	3.4
가족 동거 여부	배우자와 자녀는 고국, 혼자 한국	38.1	56.8	20.0	11.1	42.1	51.7
	원래 자녀는 없고, 부부 한국	7.1	2.7	13.3	8.3	0.0	17.2
	자녀는 고국, 부부만 한국	10.3	5.4	33.3	8.3	5.3	13.8
	부부, 자녀 모두 한국	21.9	21.6	0.0	41.7	26.3	3.4
	기타	22.6	13.5	33.3	30.6	26.3	13.8
가족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20.1	21.6	26.7	8.3	28.1	20.7
	101~150만원	41.6	51.4	73.3	33.3	15.6	51.7
	151~200만원	20.8	8.1	0.0	44.4	21.9	17.2
	201~250만원	6.7	2.7	0.0	11.1	6.3	10.3
	251~300만원	7.4	13.5	0.0	2.8	15.6	0.0
	301만 원 이상	3.4	2.7	0.0		12.5	0.0

첫째, 전체 평균 나이는 33.7세로 나타났다. 대부분 30대의 장년층 남성들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7.8세로 가장 높고 조선족이 37.1세로 거의 비슷하다. 반면에 베트남인은 29.0세로 가장 나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인은 33.5세, 인도네시아

아인이 35.1세로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조사응답자들이 기혼자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중국인이 연령이 높은 것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25.7%로 비교적 일찍 한국에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와 달리 베트남인은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국적보다 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별에서는 남자가 63.2% 여자가 36.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남녀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성이 비율이 높다. 특히 타국적에 비해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이 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필리핀인이 낮게 나타난 경우 한국으로 유입된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가 아니라, 필리핀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소득이 높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의 취업을 선호해 왔기 때문으로 보이고,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우 이슬람 사회의 경제활동에 대한 남녀차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석현호, 1998:688).

셋째,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평균거주 기간은 만 3년 9개월로 나타났다. 필리핀인이 만 5년으로 가장 오래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인 만 4년, 베트남인 만 3년 8개월, 인도네시아인 만 3년 2개월, 조선족이 만 2년으로 비교적 최근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은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김해지역에서는 거주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족의 경우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어 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함으로써 김해지역과 같은 중소지역보다 대도시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입국년도를 고용허가제 전·후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 이후에 입국한 응답자가 85.8%에 달하였다 이들은 비교적 최근에 김해지역으로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76.2%로 비교적 높았다. 대졸 이상도 25.6%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이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인, 중국인, 조선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인은 대학원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외국인노동자가 13.2%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인들의 교육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알려진 바와 같이 본국에서 송출이 이들을 선호하여 통제되고 있음(석현호, 1998:688)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선족으로 경우 중졸이하가 절반이상으로 상대

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의 국적은 같은 나라 사람이 64.3%로 가장 높았고, 한국인 24.7%, 그 외 서로 다른 국적이 1.9%, 기타 9.1%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모국인 이라고 응답한 경우 조선족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선족의 경우 친척방문, 취업방문 제 등으로 다른 국적 출신에 비해 부부가 함께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인도 모국인과 결혼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경우 베트남인이 다른 국적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비혼의 경우라고 추측된다.

다섯째, 가족동거여부에서는 부부 또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있는 경우가 39.3%, 혼자 있는 경우 38.1%, 기타 22.6%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가족모두가 한국에 있는 경우’는 베트남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과 이주결혼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부부만 한국에 있는 경우’는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높고, ‘자녀는 고국에 있고, 부부만 한국에 있는 경우’는 조선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혼이거나 법률혼 또는 정식으로 결혼한 경우보다 사실혼의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가족월평균수입은 낮게 나타났는데, 101-150만원이 가장 많았다(41.6 %). 국적별로 보면,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집단은 필리핀인 집단이고, 가장 낮은 소득 집단은 조선족이다. 필리핀인이 수입이 높은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보수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석현호, 1998:690). 그리고 조선족의 수입이 가장 낮은 이유는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이 낮거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 법인을 통하여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석현호, 1998: 690)이거나, 여성으로 주로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4.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 1)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

외국인노동자가 인지한 가족탄력성의 56개의 문항을 6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평균을 측정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		평균	표준편차
가족신념체계	가족통제감	3.50	.53
	가족강점	3.70	.54
가족조직유형	가족역할안정성	3.25	.71
	가족응집력	3.70	.56
의사소통과정	문제해결차원	3.75	.62
	정서반응차원	3.48	.80
가족탄력성		3.57	.69

조사결과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은 평균 3.57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통제감이 3.50, 가족강점 3.70, 가족역할안정성 3.25, 가족응집력 3.70, 문제해결차원 3.75, 정서반응차원 3.48로 전체 평균이 3.57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탄력성 요인 중 문제해결차원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을 솔직히 교환함으로써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으로서의 문제해결차원은 가족관계 자체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족탄력성 요인 중 가장 낮은 평균은 가족역할안정성 요인으로 3.25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들, 역할들, 상호작용 패턴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족역할안정성을 높이기 방안이 필요하다.

##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인구학적요인과 가족탄력성

외국인노동자들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성별, 국적, 거주기간, 배우자국적, 가족동거여부, 가족월평균소득 등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거주기간, 가족월평균 소득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적, 배우자국적, 가족동거여부의 세 요인과 가족탄력성을 비교분석하였다.

### (1) 국적 요인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들 각각의 독특한 모국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적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의미도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적별로 가족탄력성을 비교하기 위해 5개 집단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국적요인과 가족탄력성

빈도	가족 통제감		가족 강점		가족역할 안정성		가족 응집력		문제해결 차원		정서반응 차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중국인	40	3.60	.60	3.76	.51	3.29	.81	3.72	.54	3.76	.70	3.17	.10
조선족	16	3.90	.44	3.92	.42	3.63	.35	3.95	.46	3.93	.36	3.81	.08
베트남인	37	3.43	.54	3.69	.56	3.38	.87	3.66	.61	3.86	.59	3.63	.16
필리핀인	38	3.35	.44	3.74	.60	3.06	.63	3.75	.61	3.83	.69	3.77	.13
인니인	29	3.45	.52	3.44	.45	3.08	.47	3.49	.45	3.39	.46	3.12	.10
F값		3.080*		2.661*		2.655*		1.970		3.411*		5.757***	

\*\*\*p<.000, \*p<.05

국적에 따른 가족탄력성은 정서반응차원이 유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5.757, p<.000). 국적을 보면 조선족이 평균 3.81로 가장 높다. 이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높아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통제감, 가족강점, 가족역할안정성, 문제해결차원에서도 역시 조선

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 조선족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대부분 긍정적인 적응양상을 보이는(조복희·이주연, 2005:11) 것으로 보아 다른 국적에 비해 가족의 역할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인은 정서반응차원 요인뿐 아니라 다른 요인에서도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적 특색으로 이슬람 사회에서 남녀의 활동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일체의 공적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김영희, 2002:7) 것과 관련하여 가족 내에서도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후 집단 간 비교를 위한 Scheffé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문제해결차원에서 베트남인과 인도네시아인이, 정서반응차원에서는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의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배우자 국적 요인

가족탄력성은 개인보다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 또는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가족탄력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배우자의 국적요인을 측정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배우자 국적요인과 가족탄력성

빈도	가족 통제감		가족 강점		가족역할 안정성		가족 응집력		문제해결 차원		정서반응 차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모국인 99	3.63	.52	3.75	.54	3.34	.61	3.75	.50	3.75	.59	3.48	.73
한국인 38	3.27	.49	3.54	.54	3.27	.84	3.50	.70	3.61	.72	3.44	.88
타국인 3	3.26	.32	3.62	.37	3.13	.30	3.26	.23	3.85	.79	3.41	.52
기타 14	3.18	.47	3.75	.48	2.61	.83	4.05	.43	4.05	.57	3.41	1.19
F값	6.867***		1.428		4.478**		4.449**		1.668		.053	

\*\*\*p<.000, \*\*p<.01

[표 5]에서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가족통제감은 유의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F=6.867, p<.000). 배우자가 모국인 경우가 가족통제감이 평균 3.63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인과의 결혼보다는 모국인과의 결혼에서 가족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역할안정성( $F=4.478, p<.01$ ) 역시 배우자가 모국인 경우가 높고, 가족응집력과 문제해결차원은 기타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모국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모국인과의 결혼이 가족탄력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모국인 경우와 한국인일 경우 가족탄력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배우자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 가족통제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후 집단 간 비교를 위한 Scheffé 방법에서 가족통제감은 모국인과 한국인 간, 가족역할안정성은 모국인과 기타향 간, 가족응집력은 한국인과 기타향 간, 타국인과 기타향 간에 평균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alpha = .05$ 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기타는 현재 비혼의 상태임을 추측해 볼 때 이들의 가족탄력성이 기혼의 가족탄력성보다 높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기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분거 가족 상태로 있으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떨어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비해, 비혼의 경우는 가족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 (3) 가족동거여부요인

본 조사에서 가족동거와 비동거가 각각 절반의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동거여부 요인을 측정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족동거여부 요인에서는 가족이 동거하는 것이 동거하지 않는 것보다 가족탄력성 요인들에서 일정하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가족역할안정성 요인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F=3.696, p<.01$ ). 특히 자녀는 모국에 있고 부부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서 가족역할안정성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서 가족의 역할에서 부부가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유의미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녀와 부부 모두가 한국에 있는 경우 문제해결차원에서 평균이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거가족형태보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표 6] 가족동거여부요인과 가족탄력성

빈도	가족 통제감		가족 강점		가족역할 안정성		가족 응집력		문제해결 차원		정서반응 차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혼자한국	59	3.59	.54	3.73	.57	3.30	.67	3.76	.48	3.79	.57	3.48	.71
자녀없고 부부한국	11	3.67	.58	3.78	.68	3.27	.65	3.73	.62	3.70	.74	3.36	.79
자녀모국 부부한국	16	3.63	.57	3.78	.43	3.53	.74	3.75	.57	3.79	.57	3.50	.92
자녀,부부 모두 한국	34	3.42	.50	3.72	.55	3.38	.77	3.60	.66	3.80	.68	3.58	.93
기타	35	3.30	.52	3.56	.49	2.86	.64	3.65	.59	3.67	.69	3.38	.86
F값	2.274+		.781		3.696**		.536		.301		.311		

\*\*p<.01, +p<.1

Scheffé 방법에서 사후검증 결과 가족역할안정성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한국에 있는 경우가 기타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그 차이는  $\alpha = .05$ 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분거가족이라고 응답한 것과 관련하여 분거가족의 경우 모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분거 상태가 길면 길수록 가족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역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분거를 통해 가족의 힘을 재발견하여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진 경우도 있다(람후 몽크나룻, 2008:63).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가족을 불러들여 불법체류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동 강도를 높여 경제적 자원을 강화하는 양면적인 측면으로 나타난다. 이 때 가족의 동거여부를 떠나 가족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거가족의 경우 모국의 가족정책 개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족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 3)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외국인노동자들은 가족동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국내에

서 종종 가족의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절실함과 함께 생활수준이 불 보듯이 낮아지는 본국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경제적인 절박감(키노시타 미에, 2006:31-32)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최선을 다해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 이처럼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성별, 나이, 학력, 국적, 거주기간, 배우자 국적, 가족동거여부, 가족월평균수입 등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가족탄력성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가족탄력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213	.843		7,372
성별(남자=1)	-.008	.189	-.005	-.041
나이	.001	.016	.007	.048
학력	-.129	.109	-.144	-1.180
거주기간	-.005	.002	-.004	-.036
월평균 수입	.053	.055	.102	.964
배우자국적(한국인=1)	.083	.207	.055	.399
가족동거여부(동거=1)	-.264	.191	-.192	-1.380
국적 <sup>1)</sup> 조선족	-.191	.285	-.080	.672
베트남인	-.392	.226	-.238	-1.731
필리핀인	-.493	.246	-.270	-2.006*
인니인	-.456	.197	-.278	-2.321*
가족통제감	-.007	.012	-.094	-.592
가족강점	-.012	.017	-.104	-.685
가족역할안정성	-.089	.023	-.428	-3.849***
가족응집력	-.010	.19	-.086	-.558
문제해결차원	-.002	.028	-.010	-.066
정서반응차원	-.008	.024	-.035	-.311

1) 중국인이 준거집단임. R2=.474, \*\*\*p<.000, \*p<.01

성별, 나이, 학력, 거주기간, 월평균수입, 배우자국적, 가족동거여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해 별 차이는 없었다. 성별과 학력, 거주기간, 가족동거여부가 부(-)의 방향으로, 나이는 정(+ )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적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유의적이었다. 중국인에 비해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인의 경우 한국유입 기간이 비교적 길어 모국공동체 형성이나 그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잘 구성되어 있어 한국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종교로 인한 가족의 결속감이 타국적외국인노동자보다 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가족역할안정성만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3.849, p<.000$ ). 즉, 가족역할안정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역할안정성은 가족구성원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하는 요인이다. 가족탄력성의 각각의 요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가족역할안정성 요인 외에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5. 가족 복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함의

이상으로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인 김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연령은 33.7세로 63.2%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평균거주 기간은 만 3년 9개월로 대부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 입국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76.2%로 나타났으나, 국적에 따라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은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조선족과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모국인이 64.3%이며, 가족동거여부는 동거가 39.3%, 비동거가 38.1%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월평균 수입은 101~150만원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 요인 중에서 문제해결차원 요인이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강점과 가족응집력, 가족통제감, 정서반응차원, 가족역할안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 거주기간, 배우자국적, 가족동거여부와 가족탄력성 간의 분산분석 실시하였는데, 거주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조선족 집단이 가족탄력성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인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조사응답자의 다수가 고용허가제 이후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그에 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 국적은 모국인을 배우자로 둔 응답자가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

타났다. 가족동거여부는 가족동거가 비동거보다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가족역할안정성 요인만이 유의적이었다.

성별, 나이, 학력, 거주기간, 월평균 수입, 배우자 국적, 가족동거여부, 국적을 통제 한 후 가족탄력성의 각각의 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적요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국적이 중국인에 비해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 요인에서는 가족역할안정성 요인이 유의적이었다. 즉, 가족역할안정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역할안정성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의 새로운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화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다른 요인에서는 별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가족동반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족과의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가족을 형성하고 있고, 분거가족 상태로 지속되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 가족들의 가족탄력성을 높여 한국사회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적별 가족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이 타국적에 비해 가족탄력성이 높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중국과 조선족의 경우 외적 모습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국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조선족의 경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가족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그들의 독특한 문화에 따른 가족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규모와 가족의 규모가 지역별로 가시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외국인노동자 가족 복지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부분적으로나마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시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족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문제해결차원이 강화



될 수 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반가량은 분거가족의 형태이다. 이들의 향수와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초청 또는 가족방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환교육에 가족과의 관계 개선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동거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역할과 가족강점을 활용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역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의 결합 또는 가족 복지적 측면은 외국 인력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한국사회에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김해시에 한정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가족의 규모, 분거가족이 절반가량 됨으로써 모국 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의가 심화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후속과제로 삼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 곽민정 (2008). 결혼이민 여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전남.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보미 (2007).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스트레스, 차별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선화 (2004).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충남.
- 김성천 (2009. 12. 15).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이주아동의 권리 실태. “이주아동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동성 정책토론회 자료.
- 김안자 (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기.
- 김영희 (2002). 이슬람과 페미니즘- 최근 두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14, 6-32.
- 김재환 (2005). 한국도 이민 빚장을 풀어야 한다: 타민족의 배타적인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생산인구 감소로 개방 요구는 점차 커져. Newsweek 한국판. 15(4) 44-48.
- 김정희 (역)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R. S. Lazarus & S. Folkman의 Stress, appraisal, and coping (1984). 서울: 대광문화사.
- 김해시청 (2007). 「통계연보」. <http://gimhae.stat.go.kr>. (검색일 2009.10.1). 경남: 김해시청.
- 김해시청 (2008). 통계연보. <http://gimhae.stat.go.kr>. (검색일 2009.10.1). 경남: 김해시청.
- 김혜미, 김선화 (2008).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ctors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78-100.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12), 159-197.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람후 몽크나롱 (2009).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몽골 이주노동자의 분거 가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범식 (2008).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필리핀 미등록노동자 가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혜준 (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1), 99-129.

-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 '갈 학교가 없다. (2010. 1. 14). 동아일보.
- 석현호 (1998). 외국인 취업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한국사회학. 32(가을호), 679-701.
-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 (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 (2004). 외국인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양옥경 (역)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F. Walsh의 Family and resilience (1998). 서울: 나남.
-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양옥경, 송민정,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윤향미 (2008).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전.
- 이미승, 정갑숙 (2008).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4), 123-143.
- 이수연 (2008).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순희, 이영주, 김숙영, 김신정 (2009).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39(6), 899-910.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은희 (2008). 가족탄력모델을 이용한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적응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195-216.
- 장혜경, 김혜경, 오학수, 이기영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정기선 (1999).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적응. 산업 및 조직, 12(2), 61-78.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조경서, 유준호, 오승아 (2007).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1(3), 5-25.
- 조복희, 이주연 (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 진미정, 이순형 (2007).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5(5), 63-7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2008 통계연보. 서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국민배우자 지역별 현황, 2009년 12월. 서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키노시타 미에 (2006). 2000년 이후 아시아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족생활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 파주시역을 사례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행정안전부(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서울: 행정안전부.
- 현은민 (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인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Carter, B., & McGoldrick, M. (Eds.). (1998). *The expanded life cycle : Individual, family, community*.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Reiss, D. (1981). *The family's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Fugita, S., & O'Brien, D., (1985). Structural assimilation, ethnic group memb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A research note. *Social Forces*, 63(4), 986-995.
- Olson, D. H. (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Parrillo, N. V. (2008). *Understanding race and ethnic relations*. Pearson Education, Inc.
- Samaraisnghe, K., Fridlund, B., & Arvidsson, B. (2006). Primary health care nurses' conceptions of involuntarily migrated families' health.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301-307.
- Sandhu D.S. & Asraba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luzki, C. (1979). Migration and family conflict. *Family Process*, 18(4), 379-390.

#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f Migrant Workers on the Acculturative Stress - Focused on Gimhae Community -

Na, GumSil\* · Kim, HeeJae\*\* · Choi, SongSik\*\*\*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migrant workers' acculturative stress and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welfare. For those purposes, a questionnaire was made up based on the literature about family resilience and acculturative stress, and a survey was taken among migrant workers in Gimhae City, Gyeongnam Province. As a result, acculturative stress was under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nationality factor of social-demographic variables. The Filipinos and Indonesian was lower than Chinese. Of the factors of family resilience, stability of family roles had the greatest impacts on acculturative stress. The study find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ed to devise family welfare policies to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among migrant workers.

**Key words:** Family Resilience, Acculturative Stress, Family Welfare Policies

◆ 2010.6.9. 접수 / 2010.7.5. 1차수정 / 2010.7.19. 게재확정

---

\* Ph. D. Researcher,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Pusan National University(ngs3829@pusan.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khjhh@pusan.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choiss@pusan.ac.kr)